

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최근 LH서 공공주택 지구 개발 발표 ... 市, 시민 우려 불식 차원
공직자 광주시 10명·광산구 6명 개발 계획 1~2주 전 파악 '주목'
정세균 총리,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설치 지시

광주시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다. 시는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사전 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련성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의 투기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업무 직접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했다.

조사단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정지구에서는 아직 투기 의혹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시민 우려를 불식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고 이 시장은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특히 LH에서 이번 산정지구 공공주택 지구 조성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 1~2주 전에 광주시 공직자 10명과 광산구 공직자 6명 등 16명과 사전 조율한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투기 가담 여

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6명은 대부분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로, 일단 구두 조사에선 투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데다 발표 1~2주 전에 개발 계획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투기 가능성은 낮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산정 지구 조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조사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중앙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지역 토지 조서와 직원 명부를 비교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제정,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급증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있을까? 광주시가 최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선정된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까지 1만3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산정지구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보험사 콜센터 관련 자가격리 해제 전 31명 확진

입주 건물 곳곳에서 확진자 속출
전남에서도 산발적 감염 지속

광주 보험사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접촉자들의 추가 확진이 속출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보험

사 콜센터 관련 31명, 인천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모두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도 2165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보험사 콜센터 관련 2164명을 제외한 31명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험사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에서는 3, 4, 5, 6, 12층 등 여러 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03명이 자

가 격리됐으며 32명은 능동 감시 대상자였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7일에도 9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은 추가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1명으로 늘었다.

해제 전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3335명을 검사했다. 당국

은 자가격리 중에도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진자 가족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일 4개 시군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8일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주에서는 광주 보험사 콜센터 직원 1명이 지난 7일 신규 확진됐고, 같은날 나주 골프장 관련 확진자도 화순에서 2명이 추가됐다. 함평에서는 손불농협 관련 확진자 2명이, 영광 안마도에서는 제사참석을 위해 경기도 고양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확진됐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887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대통령 “檢 신뢰 나이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 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전 배당부터 수사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 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정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정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박물관, 남도의 빛나던 시간을 담다 ▶16면

굿모닝 예향·'우리동네 미술'·'동명동' ▶18·19면

KIA, 오늘 한화와 연습경기...장현식 선발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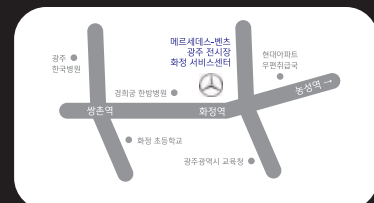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만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 (해운동)
MB 인공충고와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망향대로 516(수완동)
호운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603(번갈 20(수완동))
주관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완동)

정비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E 220 4M EX (배기량1950,공차출력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출력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출력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출력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로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롬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